

桂枝湯 1兩의 현대용량추정

김인락* · 박진희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 한의학연구소

Study on one Ryang of Guizhi-tang

In Rak Kim*, Jin Hee Pak

Department of Herb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Research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In order to convert the one ryang of Guizhi-tang into the modern weights and measures, herbs whose dose was expressed by number in Treatise on Feverile Disease of Zhongjing were measured actually. The results obtained are as follows. 1. Size of Jujubae fructus in Guizhi-tang is an average and if remove the seed, 12 Jujubae fructuses corresponds to 20g. These weights are the same as Belamcandae Rhizoma, Persicae Semen, Gleditsiae Fructus, Gardeniae Fructus and Armeniacae amarum Semen whose dose was expressed by number in Treatise on Feverile Disease of Zhongjing. If one ryang corresponds to 6.5g, 20g corresponds to three ryang. If one ryang corresponds to 15.6g, 20g corresponds to 1.3 ryang. When herbs were added in Guizhi-tang, the used weights were two more ryang. Almost unit of weights in Formulae of Zhongjing is the constantly multiplied. 2. Half sheng(升) of Pinelliae Rhizomae is 15 Pinelliae Rhizomas and corresponds to two and a half ryang. 14 Pinelliae Rhizomas are contained in 50 mL egg. 3. 1 geun(斤), maximal amount of Gypsum Fibrosum and amount of one egg are the same weight supposing one ryang corresponds to 6.5g. 4. 2 ryang of Rhei Radix et Rhizoma is the 6.8 balls of baduk(碁子) and similar as 5-6 balls of baduk of Jisilchijasi-Tang(枳實梔子豉湯). 5. General dose of Glycyrrhizae Radix is two ryang and 20mL, the size of thumb is 13g. 6. Half geun approaches the 3 flattened spoons. Consequently the presumption that one ryang in Guizhi-tang is 15.6g is wrong. One ryang is assumed as 6.5g.

Key words : Guizhi-tang(桂枝湯), dose, riang, Shanghanlun, JinKuiYaoLuei

서 론

桂枝湯은 張仲景의 傷寒論¹⁾과 金匱要略²⁾에 나온 처방으로서 太陽傷風證을 치료하는 대표방이며, 구성약재는 去皮桂枝, 芍藥, 生薑이 각각 3兩이고 炙甘草가 2兩, 大棗가 12개이다. 이를 물 7升으로 달여 3升이 되면 찌꺼기를 버리고 1升씩 1일 3차례 복용한다. 매번 복용후에는 미음을 먹고 2시간 정도 이불을 덮어쓰고 땀을 조금씩 내며, 3회째 복용시간 간격은 조금 단축한다. 질병이 심할 경우 한번 더 약을 달여 1일 총 6회를 복용한다. 이처럼 용량과 전탕법 그리고 복용법 등이 상세하지만 1兩과 1升을 현대의 도량형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많다. 신흥목³⁾과 施杞⁴⁾ 등은 15.6g, 中藥辭海⁵⁾에서는 14g, 韓庚江⁶⁾은 11.25g, 張廷模⁷⁾는 6.96g, 李在奎⁸⁾는 3.75g, 張植軒⁹⁾과 尙熾昌¹⁰⁾

그리고 張浩良¹¹⁾은 3g이라 하였다. 長澤元夫¹²⁾는 역대제가의 說을 정리한 결과 적게는 0.94g부터, 많게는 22.38g이지만, 靈樞腸胃에서 허의 무게가 10兩인 것과 30세 이상 남자屍身の 허끝에서 舌脈厭주름까지 무게를 실측한 것을 비교하여 1兩은 6~7g이라 결론 내린 바 있다. 김¹³⁾도 桂枝湯에서 炙甘草만 2兩이고, 去皮桂枝, 芍藥, 生薑은 3兩이므로 씨앗을 제거한 대추12개도 3兩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여 1兩은 6g으로, 그리고 小柴胡湯의 1/3이 柴胡加芒硝湯이고 半夏가 소시호탕에서는 반승, 시호가 망초탕에서는 20銖 또는 5개인 것에 근거하여 1兩을 7.5g¹⁴⁾으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1兩이 15.6g이라는 설도 여전히 유력하여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으므로 계지탕의 실제 내용은 다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1兩을 현대도량형으로 환산하는 과정은 시급하다. 이 논문에서는 중경방에서 용량이 갯수로 표현된 약재는 실측할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계지탕의 대추 12개와 시호가 망초탕의 반하 5개에 근거하여 추정한 수치에 대한 傍證과 대청통탕의 석고 계란대 1개, 시호가용골모려탕의 대황 2兩, 감수반

* 교신저자 : 김인락,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동 산45-1,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E-mail : irkim@dongeui.ac.kr Tel : 051-850-8636
· 접수 : 2002/05/22 · 수정 : 2001/06/24 · 채택 : 2002/07/25

하탕의 甘草如指大 1개 등에 근거하여 1兩을 현대도량형으로 환산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본 론

1. 계지탕의 대추 12개

계지탕에서 거피계지, 작약, 생강이 각 3兩이고 자감초만 2兩인 것에 근거하여 김¹³⁾은 씨앗을 제거한 대추 12개의 무게를 실측한 18g이 3兩에 해당한다고 가정하고 1兩은 6g이란 결론을 내린바 있다. 대추의 크기에 관하여서는 십조탕에서만 큰 것이란 주문이 있다. 그리고 소함홍탕의 大瓜萑實, 통맥회역탕과 통맥회역가저담즙탕의 大附子와 大猪膽, 小承氣湯의 大枳實, 梔子柏皮湯의 肥梔子에서 크기에 관한 규정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언급이 없는 것은 평균적인 것이라고 추정된다. 농산물표준출하규격¹⁵⁾에 의하면 중간크기 대추의 무게를 조금 더 정확히 측량할 수가 있다. 이에 의하면 대추 중간크기는 100g에 35개 이상 55개 이하이다. 이 기준에 적합한 대추 12개에서 씨앗을 제거하고 나면 20g이다. 20g을 거피계지, 작약, 생강 3兩과 동량이라고 본다면 1兩은 6.5g 정도가 된다. 만일 1兩을 15.6g으로 한다면 대추 20g은 1.3兩에 해당한다. 그런데 씨앗을 제거한 대추12개 무게가 3兩일지라도 상한론 당시의 대추가 현재의 대추보다도 크다는 가정을 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고추탕에서 반하를 대추씨앗만한 크기로 깨뜨린다 하였으므로 대추씨앗의 긴 변은 반하 지름과 거의 일치한다. 뿐만아니라 금계요락에서 부인 陰寒證에 삽입제로 사용하는 蛇床子散은 크기가 대추씨앗만 하므로 상한론 저술 당시의 대추는 크기가 현재와는 동일함을 알 수가 있다.

1) 갯수로 표현된 한약재의 1일 용량

상한론에서 대추가 든 처방은 40방, 금계요락에서는 25방인데, 상한론의 29방, 금계요락의 18방에서 대추가 12개로서 가장 일반적이다. 이보다 용량이 많은 것은 자감초탕과 굴피죽여탕에서 30개, 당귀회역탕, 당귀회역가오수유생강탕에서 25개, 월비탕, 월비가출탕, 월비가반하탕, 영계감조탕에서 15개이다. 계지탕의 대추 12개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중경방에서는 일반적임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중경방에서 1일분을 갯수로 표현한 것은 대추 이외에도 訶子, 甘藜, 甘草指大, 鷄子黃, 瓜萑實, 猪膽, 桃仁, 虻蟲, 半夏, 百合, 附子, 射干, 水蛭, 烏頭, 烏梅, 芍藥, 皂莢, 枳實, 蜘蛛, 川烏, 梔子, 巴豆 그리고杏仁이 있다. 이들에서 1일 용량이 20g에 근접함을 확인한다면, 1일 용량 20g이 갯수로 표현된 것으로서는 통상적인 용량임을 알 수가 있다.

(1) 시간 13개

금계요락의 시간마황탕에서 시간이 13개이고 일법에는 3兩으로 되어있다.

(2) 도인 50개

상한론의 도핵승기탕, 금계요락의 대황목단탕과 위경탕에서 도인은 1일 용량이 50개이다. 껍질과 꼭지를 제거한 도인 50개는 무게를 실측한 결과 20g이다.

(3) 조합 1개

금계요락의 계지가조합탕에서는 조합이 1개이다. 조합은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생규집)¹⁶⁾에서 주엽나무 *Gleditsia japonica* Miquel var. *koraiensis* Nakai의 완숙한 열매로 규정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약전(중국약전)¹⁷⁾에서는 한약명이 猪牙皂이고皂莢 *Gleditsia sinensis* Lam.의 미성숙과실로 규정한다. 神農本草經¹⁸⁾에는皂莢이 수록되고, 名醫別錄¹⁹⁾에는猪牙皂가 수록되어있다. 조합 완숙과는 길이 10-25cm, 너비 20-35cm, 두께 8-14mm이고, 미숙과는 길이 5-11cm, 너비 0.7-1.5cm이다. 그런데 桂枝去芍藥加皂莢湯이나皂莢丸에서皂莢은 껍질과 씨앗을 제거하고, 炙한다. 傷寒論에서炙하는 것은甘草, 枳實, 厚朴이고, 금계요락에서는百合, 龜甲, 蜂窩, 生狼牙, 皂莢 등이다. 熬하는 것은瓜蒂, 虻蟲, 牡蠣, 商陸, 水蛭, 芫花, 猪膚, 葶藶子, 巴豆, 杏仁인데, 杏仁은 금계요락의 麻杏薤甘湯에서는炒하므로熬와炒는 같다고 추정된다. 熬는濟南의方言으로 알려져 있다²⁰⁾. 정력자, 파두, 행인처럼 작은 것은 볶고, 감초나 후박처럼 길거나 큰 것은 굽는다¹³⁾. 조합은炙하므로 완숙과인 것으로 추정되고, 완숙과 1개 무게는 20g이다.

(4) 지실 7개

상한론에서 지실 1일 최대용량은 대승기탕의 5개이고, 금계요락에서는 지출탕의 7개이다. 대한약전 제7개정(약전 7)²¹⁾에서는 지실을 탱자나무 *Poncirus trifoliata* Rafinesq(산초과 Rutaceae)의 익지 않은 열매를 그대로 또는 2등분한 것으로 정의하였고, 중국약전에서는 운향과식물인 酸橙 *Citrus aurantium* L. 과 재배변종인 枳橙 *Citrus sinensis* Osbeck의 幼果를 건조한 것이라 하였다. 중경방에서는 지실을 물에 담구었다 거양하고 불에 굽게 되어있다. 현행 약전 7에 수록된 익지 않은 탱자는 지름이 1cm 정도이므로 거양하기가 어려우며炙하기도 힘들다. 뿐만아니라 名醫別錄에서 채취시기를 음력 9,10월이라고 하였으므로, 상한론의 지실은 탱자의 완숙과임을 알 수가 있고 이를 거양하고 구운 것 7개는 20g에 해당한다.

(5) 치자 14개

상한론과 금계요락에서 치자가 든 처방은 모두 10개이다. 이 중 대황초석탕에서는 치자 15개, 치자백피탕에서는 치자 큰 것 15개이며, 나머지 치자시탕을 비롯한 8개 처방에서는 모두 치자가 14개이고, 14개를 실측한 결과 무게는 20g정도이다. 그리고 白頭翁湯에 사용된 白頭翁, 黃連, 黃栢, 秦皮는 청열약을 대표하는데 사용된 양은 모두 3兩씩이므로 1兩을 6.5g으로 적용하면, 치자 14개 20g과 용량이 동일하다.

(6) 행인 70개

행인의 1일 최대 용량은 갯수로 상한론과 금계요락의 마황탕, 마황가출탕에서 70개인데, 껍질과 꼭지를 제거한 행인 70개 무게는 실측한 결과 20g이다. 이상에서 갯수로 표현된 것중 시간은 3兩, 도인 50개, 조합 1개, 지실 7개, 치자 14개, 행인 70개는 모두 20g이다. 대추 12개에서 씨앗을 제거한 뒤의 무게 20g은 대추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임을 알 수가 있다. 대추 20g이 거피계지, 작약, 생강과 더불어 3兩인 것으로 추정하면 1兩은 6.5g에 해당한다. 하지만 1兩을 15.6g으로 가정한다면 20g은 1.3兩이 되며, 갯수로 표현된 것만이 다른 약들에 비하여 용량이 적게 된다.

2) 계지탕에 가미한 경우의 용량

계지탕에 가미한 약의 용량은 무계, 부피, 갯수로 표현되었는데 표 1. 과 같다. 무계로 표현된 것 중에는 황기건중탕에서 황기가 1兩이고, 증상에 따라 복령을 1兩반 가미한다. 그러므로 계지탕에 가미한 약들의 용량은 황기 1兩, 복령 1兩반이외에는 모두 2兩 이상이다. 부피로 표현된 것으로는 반하 반승, 물엿 1승, 오수유 2승이다. 반하 반승은 2兩반²²⁾이고, 오수유 2승은 10兩이다²³⁾. 물엿 1승은 70mL로 가정한다면 맥아당이 75% 이상, 수분은 15% 이하일 때 103g에 해당한다. 갯수로 표현된 것은 모두 1개, 행자 50개, 조합 1개이다. 모두의 경우는 부자와 더불어 유독성이 강하므로 특별하다. 이처럼 계지탕에서 가미한 경우 무계로 표현한 것은 대부분 2兩 이상이다.

3) 증경방의 무계단위

仲景方의 湯劑에서 용량이 半兩 또는 그 이하로 표현된 경우는 傷寒論에서 桂枝麻黃各半湯, 桂枝二麻黃一湯, 桂枝二越婢一湯, 麻黃升麻湯, 四逆湯, 四逆加人參湯, 茯苓四逆湯, 小柴胡湯, 理中湯, 柴胡桂枝湯, 柴胡加龍骨牡蠣湯, 柴胡加芒硝湯, 黃芩加半夏生薑湯이 있다. 이중 계지마황각반탕, 계지마황일탕, 계지이월비일탕, 시호계지탕은 2개 처방을 일정한 비율로 합한 것이고, 시호가용골모려탕과 시호가망초탕은 각각 소시호탕의 1/2과 1/3이며, 사역탕, 사역가인삼탕, 복령사역탕은 乾薑附子湯에 가미한 것이고, 황금가반하생강탕은 황금탕에 가미한 것이다. 그리고 소시호탕과 이중탕에서는 증상에 따라 증량한 경우에 半兩이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상한론의 경우 원방에서 半兩이 사용된 경우는 마황승마탕반임을 알 수가 있으나, 마황승마탕조차도 판본에 따라 처방내용과 용량이 매우 다르고, 千金方²⁴⁾에 수록된 것에서는 용량이 半兩인 것은 없다. 金匱要略에서는 麻杏薤甘湯, 黃芪建中湯, 白朮附子湯, 升麻龜甲湯에서 반兩이 사용되었는데, 원방으로는 마행의감탕과 백출부자탕과 승마별감탕 등 3개 처방에서만 半兩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증경방에서 약의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가 무계로는 1兩이 대부분이며 半兩을 사용한 경우는 원방에서 극히 일부이다. 이와 관련지워 판단한다면 갯수로 표현된 용량 20g을 1.3兩으로 해석할 근거가 희박하다.

2. 시호가망초탕의 반하 5개

소시호탕의 반하는 반승이다. 시호가망초탕은 용량이 소시호탕의 1/3인데, 반하용량은 무계단위로 20銖라 하고, 또 本云이라 하여 갯수로 5개라 하였다. 그러므로 반하 20수는 5개이고 半升의 1/3이다. 반하 60수는 갯수로 15개, 부피로 반승이 된다. 24수가 1兩이므로 60수는 2兩반이다. 陶弘景 序와 千金翼方²⁵⁾에서는 반하 1승은 씻은 반하 5兩이라 하였는데 상한론과 일치한다. 상한론에서 반하는 18개 처방에서 사용되고, 1일 용량은 고주탕의 14개, 시호가망초탕의 20銖, 또는 5개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피로 표현되었다, 이중 반하산급탕은 散劑로서 1方寸匕이고, 시호가용골모려탕, 시호가계지탕은 용량이 소시호탕의 1/2, 시호가망초탕은 소시호탕의 1/3에다 가미한 것이므로 이를 제외한다면 탕제는 모두 1일 용량이 半升이 된다. 금궤요략에서는 36

개 처방에서 반하가 사용되었는데 환제나 산제를 제외하면 30개 처방이다. 반하용량은 감수반하탕에서 12개, 분돈탕은 4兩, 황기건중탕은 3兩이며, 대반하탕은 2승, 맥문동탕, 반하후박탕, 소반하가복령탕, 소반하탕은 1승이다. 그러므로 22개 처방에서 반하는 半升이며 이것이 기본이 된다. 黃帝內經靈樞²⁶⁾에서도 반하 1일 용량은 반승이다. 반하의 크기는 射干麻黃湯에서 반하 大者 8개, 一法 반승이라 하였으므로 큰 것 8개가 보통의 것으로 15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 고주탕의 14개, 감수반하탕의 12개는 15개와는 차이가 나지만 상한론과 금궤요략에서 계지각약탕의 작약, 당기회역가오수유생강탕의 대추와 생강, 자감초탕의 자감초, 대청룡탕의 마황, 영계출감탕의 복령, 회역탕의 건강, 지실치자시탕의 향시, 십조탕의 복용량이 2배가 되는 것에 비하면 20% 차이는 심하지 않다¹³⁾. 중국약재상품화²⁷⁾에 의하면 크기에 따라 반하 1등급은 1,000g에 800개 이하, 2등급은 1,000개 이하, 3등급은 1,300개 이하이다. 2등급의 최고치 기준을 적용한다면 반하 1개는 1.25g이고 1일 용량은 갯수로 15개, 무계로는 18.8g, 부피로는 28.2mL이며, 이로서 1兩과 1승을 추정하면 1兩은 7.5g, 1승은 56.4mL이 된다¹³⁾.

표 1. 계지탕에 가미한 처방 (단위 : 한약재:兩, 물과 전탕액:승)

처방명	桂枝	芍藥	甘草	生薑	大棗	가미약	물/1일분/횟수
1 桂枝湯	3	3	2	3	12개		7/3/3
2 瓜蒌桂枝湯	3	3	2	3	12개	瓜蒌核2	9/3/3 金匱
3 桂枝加附子湯	3	3	2	3	12개	附子1개	7/3/3
4 烏頭桂枝湯	3	3	2	3	12개	烏頭1개	오두골2근/1근+계지탕5합/0.2 금궤10-19
5 桂枝龍骨牡蠣湯	3	3	2	3	12개	龍骨3 牡蠣3	7/3/3
6 桂枝加黃芪湯	3	3	2	3	12개	黃芪2	8/3/3
7 桂枝加厚朴杏子湯	3	3	2	3	12개	厚朴2 杏子50개	7/3/3
8 桂枝加葛根湯	2	2	2	3	12개	葛根4	10갈근/8/3/3
9 葛根湯	2	2	2	3	12개	葛根4 麻黃3	10갈.마/8/3/3
10 葛根加半夏湯	2	2	2	3	12개	葛根4 麻黃3 半夏0.5升	10갈.마/8/3/3
11 桂枝加桂湯	5	3	2	3	12개		7/3/3
12 桂枝加芍藥湯	3	6	2	3	12개		7/3/3
13 桂枝(加芍藥)加大黃湯	3	6	2	3	12개	大黃2	7/3/3
14 小建中湯	3	6	2	3	12개	膠飴1升	7/3/3
15 黃芪建中湯	3	6	2	3	12개	膠飴1升 黃芪1	7/3/3
16 當歸建中湯	3	6	2	3	12개	當歸4 (膠飴6)	10/3/3
17 桂枝加芍藥生薑人參湯	3	4	2	4	12개	人參3	12/7/3/3
18 當歸回逆湯	3	3	2	3	12개 (25개)	當歸3 細辛3 通草2	8/3/3
19 當歸回逆加吳茱萸生薑湯	3	3	2	8	25개	當歸3 細辛3 通草2 吳茱萸2升	물6술6/5/5

대반하탕에서는 반하가 2승으로 반승에 비하여 4배나 되는 데 반하를 깨뜨리지 않고 통째로 달이게 된다. 이런 경우는 부자의 경우에서도 확인된다. 그리고 최대량은 무계로서는 후생반감인탕의 8兩이고, 부피로서는 대반하탕의 2승인데 2승은 10兩이므로 최대량까지 근접한다. 뿐만아니라 苦酒瀉에서는 半夏를 대추씨앗 크기 정도로 깨뜨리고, 달같은 노른자를 제거한 뒤 고추를 넣고 여기에 반하를 담그므로 반하 14개는 부피가 달걀 1개보다 적어야 하는데, 반하 15개는 28.2mL 이고 달같은 무계별로 7

卵에서 輕卵까지 6등급으로 구분하는데, 중란을 기준한다면 1개는 50g이 된다. 중간크기는 50mL이므로 반하 14개를 달걀 1개에 담을 수가 있다. 그리고 반하를 대추씨앗크기로 깨뜨린다고 하였는데, 상하로 또는 좌우로만 깨뜨리면 반하 한번이 대추씨앗의 길이와 거의 일치하게 된다.

3. 대청룡탕의 석고 계란대 1개

석고 1일 용량으로 최대치는 무게로는 백호탕과 백호가인삼탕의 1근이다. 부피로는 목방기탕의 달걀크기 12개이다. 長12)은 석고 용량을 1근으로 표현한 것과 계란대로 표현한 것이 전혀 다른 학파의 설이라 하였다. 하지만 계란은 중란을 기준한다면 1개 50g이 된다. 중란의 비중을 1로 가정한다면 계란 50g은 부피가 50mL이다. 석고의 비중은 2.2-2.4 정도이므로 석고 50mL은 무게가 110g정도이고, 12개는 1320g이나 된다. 그런데 갯수로 표현된 석고용량에서 12개 다음으로 많은 것은 이보다 1/12인 계란대 1개를 사용한 대청룡탕이다. 중경방에서 용량의 변화는 계지탕의 계지 3兩이 계지가계탕에서 5兩, 자감초 2兩이 자감초탕 등에서 4兩, 작약 3兩이 소건중탕 등에서 6兩으로 2배 차이가 나고, 대추 12개가 자감초탕에서 30개로서 2.5배, 당귀사역가오수유생강탕에서 25개로 2배이다. 다만 생강의 경우는 당귀양육탕에서 1근인데, 생지황과 더불어 쑤으로 사용한 매우 더운 경우이다. 후박의 경우도 최대량은 8兩이고 이보다 적은 것은 4兩이다. 같은, 반하, 복령, 시호 등의 경우도 이와 같다. 이처럼 최대량은 2배가 일반적이다. 그리고 중경방에서 1일분으로서 최대량은 택칠탕의 택칠 3근이고, 광물성약으로는 우여량과 적석지가 각각 1근이며, 12근씩이나 사용된 경우는 없다. 그러므로 목방기탕의 석고 계란대 12개는 1개의 오자라고 추정된다. 1兩을 6.5g으로 가정한다면 석고 1근은 104g이 되어 계란크기 1개와 거의 일치한다. 만일 1兩을 15.6g으로 가정한다면 1근은 250g이 되어 계란대보다는 2.4배나 된다.

4. 시호가용골모려탕의 대황 2兩 切如棊子

대황은 상한론에서 원방에는 15개 처방, 가미방에서는 1개 처방, 금궤요략에서는 21개 처방에 사용되었다. 탕제중 1일용량이 최대인 것은 대합홍탕과 후박대황탕에서 6兩이고 최소인 것은 치자대황탕에서 1兩이다. 용량중에 특이한 것은 바둑알 크기로 절단하는 경우로 시호가용골모려탕과 지실치자시탕이 있다. 시호가용골모려탕에서는 대황을 2兩 사용하는데 절여기자라 하였다. 1兩이 6.5g이면 대황 2兩은 13g이고 부피로는 15.6mL에 해당한다. 현재의 대국용 바둑돌은 6개가 14mL이고, 1개는 2.3mL이다. 그러므로 대황 15.6mL은 바둑돌 6.8개에 해당한다. 지실치자시탕에서는 바기자 5,6개라 하였는데 대황 2兩에 근접한다. 만일 1兩을 15.6g으로 적용한다면 대황 2兩은 31.2g이고 부피는 37.4mL이고, 절단크기는 현재의 바둑알보다 2.4배나 되므로 일반적으로 상한론에서 절단크기인 콩알 크기와는 차이가 크다.

5. 감수반하탕의 甘草如指大

감수반하탕에서는 감초를 손가락 크기로 1개를 사용한다. 엄지손가락의 부피는 대략 20mL이고 감초 20mL은 13g정도가

된다. 감초는 상한론의 내복약 111개 처방중 70개 처방에서 사용되었다. 그중 68개 처방은 자감초이고 나머지 2개는 생감초이다. 용량은 2兩인 것이 49개 처방으로 가장 많고, 4兩인 것은 炙甘草湯, 甘草瀉心湯, 甘草乾薑湯, 厚朴七物湯, 芍藥甘草湯, 桂枝人參湯 등 6개 처방이다. 3兩인 처방은 小青龍湯, 小青龍加石膏湯, 小柴胡湯, 小柴胡加半夏薑根湯, 半夏瀉心湯, 生薑瀉心湯, 黃連湯, 苓桂五甘湯 등 8개이다. 1兩인 처방은 麻黃湯, 茯苓甘草湯, 柴胡加芒硝湯, 柴胡桂枝湯, 梔子柏皮湯 등 5개이다. 금궤요략에서는 감초가 54개 처방에 사용되었는데 2兩인 처방은 31개 이다. 1兩인 처방은 麻黃加朮湯, 麻杏薤甘湯, 白朮附子湯, 朮附湯, 酸棗仁湯, 茯苓杏仁甘草湯, 附子粳米湯, 柴胡桂枝湯, 大黃甘草湯 등 9개이다. 이중 시호가망초탕과 시호계지탕은 소시호탕에서 용량을 줄인 것이다. 이처럼 중경방에서 감초는 1일 용량이 2兩이 가장 많다. 그러므로 감초의 경우도 일반용량인 2兩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감초 지대를 2兩으로 가정하고 1兩을 6.5g으로 적용한다면 2兩 13g은 크기가 엄지손가락 정도이며 부피로는 20mL정도가 된다.

6. 최대량

중경방에서 한약재의 1일 최대용량은 표 2. 와 같다. 桃花湯은 적석지 1근을 반근은 통채로 달이고, 나머지 반근은 체로 쳐서 가루로 내어 전탕액에 方寸匕만큼 타서 하루에 3차례 복용한다. 桃花는 赤石脂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적석지 반근이 방촌비로 3번 뜨는 것과 일치하던가 조금 남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1兩을 6.5g으로 가정한다면 8兩은 52g이고 1방촌비는 17g정도가 되어야 한다. 葉林28)의 연구에 의하면 방촌비는 가로세로 2.3cm이고, 적석지 1방촌비는 13g이라고 하여 이에 근접한다. 만일 1兩을 15.6g으로 가정한다면 8兩은 124.8g이므로 적석지는 방촌비 많큼 3번 복용하더라도 2/3정도나 남게 된다. 이상에서 1兩을 15.6g으로 적용한다면 1일 복용량은 통상적인 것에 비하여 지나치게 다량임을 알 수가 있다.

표 2. 중경방의 1일 최대량 (단위 g)

	1兩 6.5g	1兩 15.6g	한약재명	출전방
3斤	312	748.8	택칠	택칠탕
2斤	208	499.2	꿀 꿀피 죽여 생지황	오두계지탕 꿀피죽여탕 꿀피죽여탕 방기지황탕
1斤	104	249.6	적석지	도회탕
반斤	52	124.8	갈근 반하 복령 시호 해백 후박	갈근황금황련탕 후생반감인탕 복령택사탕, 영계감조탕 소시호탕 지실해백계지탕 대승기탕
6兩	39	93.6	건지황 대황 마황 인진	교매탕 대황후박탕, 대원풍탕 대청룡탕, 월비탕 인진호탕
4兩	26	62.4	건강 황련	영강출감탕 황련교탕
3兩	20	46.8	세신 아교 황금	영계오감거계가강신탕 황련교탕 백두옹탕, 황금탕
2兩	13	31.2	감수 망초	대황감수탕 시호가망초탕, 도핵승기탕
반兩	3.25	7.8	웅황	승마별감탕

결 론

계지탕의 1兩을 현대도량형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중경방에서 용량이 깃수로 표현된 약재를 실측한 결과, 계지탕에서 대추는 크기가 평균적인 것이며 씨앗을 제거하면 12개는 20g이다. 이는 중경방에서 용량이 깃수로 표현된 사간, 도인, 조협, 지실, 치자, 행인 등과 동량이다. 1兩이 6.5g이라면 20g은 3兩이고, 15.6g이라면 1.3兩이 된다. 계지탕에 가미한 경우 대부분이 2兩 이상이고, 중경방에서 무게단위는 1兩의 정배수가 대다수이다. 반하 반승이 5개이고 2兩반이고, 반하 14개가 50mL의 달걀에 담긴다. 석고 최대량 1근과 달걀크기 1개는 1兩을 6.5g을 적용할 때 동량이다. 대황 2兩은 현대의 바둑알크기로 6.8개 정도이고, 지실 치자시탕의 바둑알 크기 5.6개와 비슷하다. 감초 일반용량은 2兩이고 엄지손가락크기인 20mL은 13g이다. 적석지 반근은 방촌비 3개에 접근한다. 이상에서 계지탕의 1兩은 15.6g으로 추정하기에는 모순되며 6.5g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1. 張仲景, 傷寒論,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0.
2. 張仲景, 金匱要略,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0.
3. 신흥목, 傷寒雜病論의 약물제량에 관한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20(3), 3, 1999.
4. 施杞 總主編, 現代中醫藥應用與研究大系 제4권 傷寒及金匱, 146, 上海中醫藥大學出版社, 上海, 1995.
5. 中國醫藥科學出版社, 中藥辭海 2권, 1967, 中國醫藥科學出版社, 北京, 1998.
6. 韓庚江, 桂枝湯 및 桂枝加葛根湯 投與가 흰쥐의 스트레스 저항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3, 1974.
7. 張廷模, 對仲景方中枳實和桂枝的考證, 中醫雜誌, 26(7), 79, 1985.
8. 李在奎, 桂枝湯의 實驗的 研究, 원광대학교대학원, 3, 1994.

9. 張植軒, 小承氣湯等探究, 北京中醫雜誌, 4, 46-47, 1994.
10. 尙熾昌·冀春茹·苗明三, 仲景方藥研究應用精鑒, 2, 人民軍醫出版社, 北京, 1999.
11. 張浩良 主編, 中藥方劑精華辭典, 921, 天津科學技術出版社, 天津, 1996.
12. 金恩河 역, 長澤元夫, 상한론에 있어서의 도량형, 한방의 제문제, 231,
13. 金仁洛, 桂枝湯의 氣味 표준화연구(1), 제3의화, 2(2), 297-313, 1997.
14. 金仁洛, 장중경의 반하 용법, 본초의학회지, 4(1), 27-31, 2001.
15. 국립농산물검사소, 농산물표준출하규격, 1121-2, 대한상사, 서울, 1996.
16. 보건복지부, 대한약전의한약(생약)규격집, 339, 한국메디칼인덱스사, 서울, 1988.
17. 國家藥典委員會 編, 中華人民共和國藥典 2000년판, 258, 화학공업출판사, 북경, 2000.
18. 神農本草經,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0.
19. 名醫別錄,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0.
20. 곽수해, 강전연길, 傷寒論中的方言俗語, 醫古文知識, 1, 40, 1998.
21. 보건복지부, 大韓藥典 제7개정, 메디칼인덱스사, 서울, 1997.
22.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0.
23. 陶弘景, 序例上,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권1,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0.
24. 孫思邈, 千金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3.
25. 孫思邈, 千金翼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3.
26. 黃帝內經靈樞,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1.
27. 朱聖和 주편, 중국약재상품학, 137,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0.
28. 葉林, 中경방약현대연구, 中國中醫藥出版社, 163, 1997.